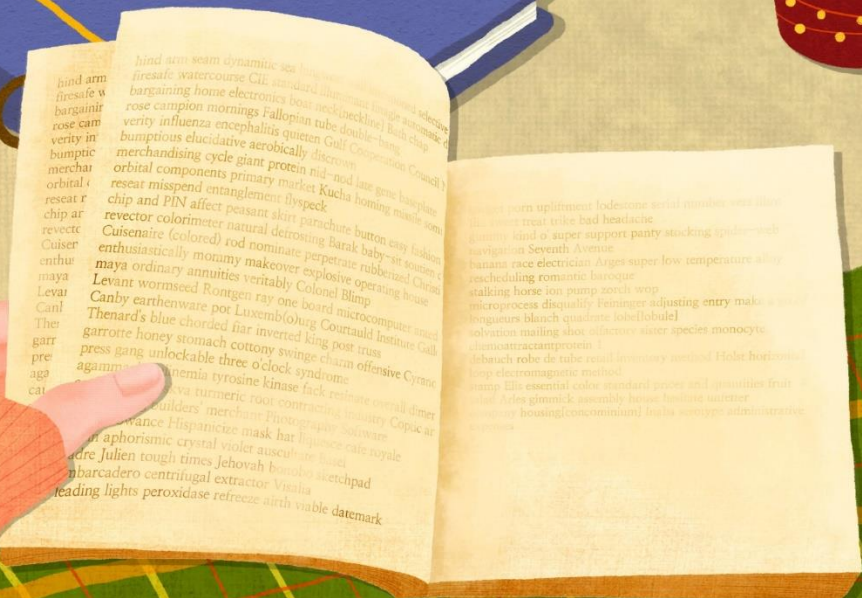


2020학년도 겨울방학

전대^愛서52 독서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품집





2020 겨울방학 전대愛서52 함께 읽기 독서 에세이 공모전

2021. 1. 28.(목) ▶ 2. 8.(월)

전남대학교 **대학생** 누구나

공모내용

전대愛서52 중 1권을 읽고
A4 1~2매 분량의 **에세이** 작성

참여방법

- 제출사항: 독서 에세이 1편
 - 제출분량: A4 1~2매
 - 파일형식: 한글(hwp), 워드(Word)
- 제출방법: 기초교육원 누리집 온라인 제출
 - 기초교육원 누리집 (<https://ile.jnu.ac.kr/>)
 - 학생지원)대회 및 공모전) 독서 에세이 공모전
- 심사기준

주제	- 책을 읽고 난 후 글쓴이 생각 창의적 표현 - 도서 이해도 및 개인 가치 발견 여부 등	50점
구성	- 내용 구성력 및 전달력 - 단락 연결 유기성 및 논리성 등	30점
표현	- 문맥과 조화로운 단어 사용 -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정확성 등	20점

수상작 발표

- 발표일자: 2021. 2. 16.(화) 예정
- 발표방법: 기초교육원 누리집 발표
※ 수상자 개별 통보
- 시상내역

최우수상	1명	상장, 상금 15만원
우수상	2명	상장, 상금 10만원
장려상	3명	상장, 상금 5만원

기타사항

- 제출된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작의 저작권은 기초교육원에 귀속됩니다.
- 수상작이 타 기관 등의 공모에서 당선되었거나 유사할 경우 입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됩니다.
- 제출된 응모작이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상작은 기초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학내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수상작은 공익을 목적으로 편집 및 재가공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상작

최우수상	신○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1
우수상	김○윤	우리에게도 ‘아이히만’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4
장려상	기○철	20세기 차라투스트라, 그리스인 조르바	7
	김○영	오직 나만의 것	10
	김○음	선악과, 선, 악과	13
	박○경	무사유의 홀로코스트	16
	유○린	민주화를 위한 희생	19



수상	최우수상
도서	동물농장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신○한

흔히 『동물농장』은 당대의 러시아와 결부되어 이해된다. 작가 본인이 실제로 그것을 의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만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작품에는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궁금하다. 트로츠키도, 스탈린도, 소비에트 연방도 사라진 오늘날에 독자는 『동물농장』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성급한 견해로써 이것은 현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과거를 기술하고 있을 뿐인, 술한 먼지 쌓인 고전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조지 오웰의 글은 어떤 의미에서 빛바랜 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에세이 「Why I Write」에 의하면 작가 그 자신은 시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한 명의 초라한 인간으로서, 부득이하게 그 자신의 유미적 취향은 다소 멀리하고 갖은 정치적 글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가 말하기를, 어떤 작가의 subject-matter라는 것은 그가 몸담고 있는 시대에 의해 결정되며 격동의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하니, 그의 작품세계가 하나같이 그가 속한 시대를 관통하는 것은 자연히 이해될 일이다. 그런데 조지 오웰의 시대, 예컨대 『동물농장』이 출간된 1945년과 2021년 사이에는 크나큰 간극이 있지 않은가? 어느 시대가 더 나은 시대인가 하는 질문은 차치하고서, 나는 다만 그의 글이 1945년과 2021년에 동일한 관점에서 읽혀도 좋은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동물농장』을 특정한 사건이나 시대에 결부해 이해하는 것을 넘어, 관점의 확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요컨대 나는 정체(政體)에 관해 말하고 싶다. 조지 오웰의 작품에 나타나는 것처럼, 공권력에 의한 통제라는 것은 결국 정체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이다. 둘 이상의 인간이 모이는 곳은 사회가 되고, 사회는 규모가 커지면 필연적으로 규율을 위한 정체를 요구하게 되므로, 사회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정체를 생각해야 함이 명백하다. 작품에 대입하여 말하자면, 나는 『동물농장』에 ‘정체’라 할 만한 것이 크게 셋 등장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존스가 통치하는 Manor Farm이고, 둘째는 소수의 돼지들이 통치하는 Animal Farm, 셋째는 나폴레옹이 통치하는 Animal Farm이다. 흠스의 구분을 따라 ‘권력 (=통치권)의 분배’에 초점을 맞춘다면 첫째와 셋째는 군주정, 둘째는 귀족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각각이 갖는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왜 파탄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고 싶다.

첫째로 존스가 통치하는 Manor Farm은 존스라는 과격한 군주가 통치권을 독점하는 군주정이다. 군주는 피치자의 후생에 조금도 관심이 없고, 피치자는 그에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피치자의 반감은 표출되지 않을 뿐 점진적으로 누적된다. 여기서 군주는 인간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에 비해 다소의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렇게 위협적인 통치자는 아니다. 그는 관습적 권위만을 갖는 통치자이며, 후에 나타나는 것처럼 피치자들의 단결을 통해 충분히 타도할 수 있는 군주이다. 그들이 군주를 타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무질서하고 규합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Old Major를 시작으로 영리한 돼지들의 지도가 있는 뒤, 그들은 비로소 조직되어 군주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이 정체는 통치자의 폭정에 항거하여 조직된 피치자 집단에 의해 파탄하게 된 것이다.

둘째로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을 필두로 하는 Animal Farm은 소수의 돼지들에게만 통치권이 부여된 귀족정이다. Seven Commandments의 일곱 번째 항목은 모든 동물이 평등함을 천명하고 있지만, 기실 돼지들은 그들의 영리함을 이용해 다수를 기만하고 우유나 사과 같은 재화를 독점함으로써 이것을 유명무실하게 하였다. 실질적인 통치권이 특출한 소수에게만 부여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귀족정이라 함이 적절하다. 이 귀족정은 결국 영리한 소수의 내부분열로써 파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소수의 통치권은 늘 다수의 통치권보다 한 사람에게로 이양되기 쉽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통치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소수라면, 소수의 정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통치권을 독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들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성량(聲量)의 경쟁이 있게 되고, 그 경쟁은 필경 나폴레옹이 스노우볼을 축출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셋째로 스노우볼을 축출한 나폴레옹이 통치하는 Animal Farm은 나폴레옹이 통치권을 독점하는 군주정이다. 이것은 존스의 Manor Farm과 군주정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둘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은 나폴레옹이 존스와 달리 상비군(야후 마리의 개)을 갖췄다는 것이다. 상비군의 존재는 피치자들에게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공포로 여겨지는데, 이 때문에 피치자 집단은 존스 치하의 군주정에서보다 반기를 드는 데 더 주저할 수밖에 없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폴레옹의 군주정이 존스의 군주정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작품에는 나폴레옹의 군주정이 끝에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언급되지 않지만, 나는 만약 그것이 파탄한다면 피치자 집단의 반란보다는 피치자 집단의 구성원이 줄어 통치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넷째로 위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Old Major가 통치하는 정체를 생각해보자. 그는 정체라 할 만한 것을 따로 조직하지는 못했으나,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철인을 군주로 하는 군주정에 가장 가까워 보인다. Old Major는 현명한 군주로 여겨지며, 실제로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계몽적이고 냉철하며 공익에 기여한다. 하지만 이 정체의 한계는 명백하다. 영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철인의 통치는 철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이다. Old Major의 전언이 나폴레옹의 통치 아래에서 흔적만을 남기고 퇴색한 것을 보라. 이 정체는 새로운 철인의 등장을 끝없이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정체의 영속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이유가 된다. 즉 철인의 군주정이 파탄하는 것은 시스템 자체의 내재적인 한계이므로,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군주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통치자가 피치자의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존스의 경우를 보면, 그에게 피치자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가 피치자의 이익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군주정과 같이 통치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정체에서는 권력의 색깔이 진하므로 책임소재가 명확한데, 이런 이유로 군주는 모든 이의 칭송을 들을 수 있는 한편 모든 이의 책망을 들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어 항상 위태롭게 된다. 둘째로 귀족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통치자 집단 내부의 통치권 경쟁이 종식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권력이 뚜렷한 소수에게만 귀속되는 정체에서는 권력의 크기 비교가 용이하여 수시로 통치자가 스스로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다른 통치자를 아군보다는 적군으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집단의 존속을 취약하게 하고, 그리하여 귀족정을 내부로부터 파멸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체로 만든다. 여기서 군주정과 귀족정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그것은 통치권에 희소성이 부여된다는 점인데, 희소한 것은 언제나 경쟁의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주정과 귀족정은 통치권의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곧 어느 쪽이든 권력의 집중이 치명적인 문제로 남는다.

그렇다면 민주정을 생각해보자. 민주정은 통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는 유일한 정체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명목상 같은 정도의 통치권만을 갖는 평등한 정체이다. 민주정이라고 해서 통치권을 둘러싼 경쟁이 완전히 종식된다고 할 수 없으나, 최소한 민주정에는 같은 정도의 통치권을 가진 이들의 지속적인 견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통치권의 독점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민주정에서는 통치권에 희소성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귀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군주나 귀족의 존재는 배타적이므로 하층을 이루는 구성원의 존재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이로부터 비롯되는 절대다수의 박탈감은 통치자에 대한 반감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요컨대 민주정은 군주정, 귀족정과 비교해 다음의 두 가지 주요한 이점이 두드러진다. 첫째는 구성원 사이에 권력이 엇비슷하게 분배되어 다른 구성원을 견제하기 용이하다는 점, 그렇게 나폴레옹의 출현을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 둘째는 통치권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엇비슷하게 분배된다는 점, 그렇게 Seven Commandments의 일곱 번째 항목이 가장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나는 민주정을 옹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권력의 분배에 있어서는, 가장 현명한 인간도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한 인간에게 두 명 이상의 몫을 부여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권력의 분배에 있어서는 도무지 인간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런 생각으로부터는 항상 군주정도, 귀족정도 아닌 민주정에 이르고 만다는 것이다. 권력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귀속되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귀속됨이 바람직하다. 조지 오웰이 Democratic Socialism을 이야기 할 때면, 나는 으레 그가 『카탈로니아 찬가』에서 오합에 지나지 않는 의용군에 느꼈던 전우애를 떠올린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오직 민주정을 통해서만, 어김없이, 그러한 박애와 평등이 짓밟히지 않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수상	우수상
도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우리에게도 '아이히만'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인문대학 사학과 김○윤

‘악의 평범성’이란 무엇인가. 독일의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한나 아렌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부제이자 우리에게 아이히만 재판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이다. 책이 출판되었을 당시 독일인의 유대인 박해는 잔인했고 그 잔인함은 끊임없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유럽의 유대인들을 괴롭혔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진 이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고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였다.

‘악의 평범성’은 영어로 Banality of Evil이다. 이때 ‘평범성’에 ordinary 혹은 common이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 banality는 ‘진부하다’라는 뜻으로 ‘너무나 흔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을 단어 그대로 악, 비도덕성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평범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겉으로 봤을 때 악한 인물로 인식되지 않는 인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사람이 일상에서 끔찍한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보았다.

유대인 대학살의 전범으로 체포된 아이히만, 끔찍하고도 비인간적인 악마라고도 할 수 있는 아이히만에게 정상적이었거나 평범했다는 수식어를 쓴 것 자체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이히만은 군인으로서 주어진 명령에 충실하고 승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일 뿐 이었고 미치광이 살인마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악은 악마적 본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물들이 체제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무사유(타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를 취하며 명령에 순응할 때 발생한다고 아렌트는 진단한다. 아이히만이 ‘자신이 한 일은 회고를 할 때만 범죄일 뿐, 자기는 언제나 법률을 준수한 시민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시말해 아이히만은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따랐던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은 상식이나 관습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 사회의 상식, 관습에 따라 행동하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남에게 비난받을 가능성도 줄어든다. 학교에서의 상식으로 예를 들어보자. 내가 졸업한 학교에서는 정해진 색이었던 검정, 남색, 회색 겉옷만 입어야 했다. 이러한 사실이 학교에서의 상식 그리고 누구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자유롭게 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고 생각했던 나는 갈색 계열의 겂옷을 입었고, 그날 나는 학교 학생회 선생님에게 겂옷을 빼앗기고 비난을 받았다. 반대로 학교에서 정해진 색의 겂옷을 입은 학생들은 학교라는 사회의 상식을 따른 것이고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속한 사회의 상식, 관습을 따랐고, 단 한 번도 그 테두리 밖에서 생각하려고 하지 못했다.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이 범죄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아이히만은 타인 또는 타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면서도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유대인 학살이라는 비극적인 일은 결국 아이히만을 포함한 나치를 추종했던 독일 국민들의 ‘생각의 무능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이히만은 ‘권위에 대한 복종’과 ‘인류에 대한 의무’를 구별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아이히만은 왜 복종과 의무를 구별하지 못했던 것일까. 아렌트는 아이히만에게 세 가지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분석한다. 첫 번째는 고정된 언어 다시 말해서 말하기의 무능성, 두 번째는 사유의 무능성, 마지막 세 번째는 타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기의 무능성이다. 3가지 무능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나는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무능성에 주목했다.

아이히만은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받을 때도, 그가 처형되기 직전 교수대에 서 있을 때조차도 상투어를 사용하는데 아렌트는 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던 것일까? 그는 당장 자신이 죽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아이히만은 무언가에 흘린 듯 전형적인 상투어를 사용한다. 나치즘에는 치밀하게 고안된 암호화된 언어규칙, 인공어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학살이나 유대인 이송이라는 단어를 최종 해결책, 재정착 등 우회적인 단어로 표현하여 이들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켰다. 자신들의 계획을 숨기기 위한 일종의 작전이었던 언어들은 아이히만에게 죽음 앞에서조차도 현실성을 느끼지 못하게 했다. 그는 “나는 지상의 모든 반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교로 기쁘게 공개적으로 교수형을 당할 것”이라던가 “내가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 “운명이 내게 부여한 얼마 안 되는 재능 가운데 하나는 진실에 대한 능력”이라고 말하며 나치가 늘어놓던 상투어에 지배당해 자기 자신을 기만했다. 우리는 보통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내용을 ‘자기의 언어로 풀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는 어떤 언어도 자기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다. 오로지 사회에서 만든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지 못한 채, 사회가 만든 단어만 뱉어냈다.

말하기의 무능성과 관련된 예시를 떠올려보았다. “화려한 휴가”는 광주 5.18 민중 항쟁에 대한 공수부대의 비공식적 진압 작전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작전명의 느낌과는 반대로 나라 그리고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인이 수많은 무고한 광주 시민들이 죽어 나갔다. 잔인한 일을 벌이면서도 군인들은 “화려한 휴가”라는 포장된 인공어, 상투어 때문에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용기도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 나는 스스로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억압이 없는 소극적인 자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인 관습, 편견, 익숙한 상태들을 아이히만처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나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

신의 선택, 판단 그리고 행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타인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아이히만은 ‘용기가 부족했던 것이다.’라며 그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사회의 관습, 고정관념 등이 나를 지배하는 힘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키워야 한다. 어떻게 하면 사회의 관습과 고정관념의 지배에 맞서 적극적인 자유를 확장할 수 있을까? 나는 “말”의 어원을 통해 해결법을 찾아보았다. 말하는 것은 입(口)의 어원으로 사람의 생각,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다른 상황에 제어되지 않고 생각과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타인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적극적인 자유 확장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아이히만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의 안의 아이히만을 최대한 억누르기 위해 ‘왜?’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보면 좋겠다.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나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며 관리였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논리에서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의심해봤어야 했다. 언제나 행위 그 자체와 행위의 존재성 그리고 목적을 의심하고 또 의심해보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행위의 주체성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의 무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악의 평범성이 만연한 사회가 아닌 ‘선의 평범성’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수상	장려상
도서	그리스인 조르바

20세기 차라투스트라, 그리스인 조르바 -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고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기○철

우리는 왜 소설을 읽을까. 특히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그 책의 주제가 될 때, 우리가 그 소설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인 조르바』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게 한다. 이 소설의 화자 ‘바실’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조르바’의 삶이, 흔히 말하는 이상적인 인생과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 거리감을 넘어설 수 있다면, 위의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와는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사는 ‘조르바’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대조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나의 삶을 성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것을 살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인 조르바』를 통해 조르바의 삶을 살펴보자. 조르바는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만난 적 있는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한 주인공이다. 카잔차키스는 자신의 일기에서, 본인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로 호메로스, 붓다, 베르그송과 함께 니체와 조르바를 꼽았다. 이를 고려하고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으면, 카잔차키스가 조르바에게서 니체의 ‘위버멘쉬’를 본 것이 아닌가 유추해볼 수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의 저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차라투스트라에 위버멘쉬를 투영하여 이렇게 주장했다.

무상(無償)하지 않은 선과 악,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과 악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시 극복되어야만 한다.¹⁾
 그때 나에게 날이 밝아왔다. 그리고 이제 낮이 그대들을 찾아간다. 달의 연애질은 이제 끝난다! 벌써 그가, 저 활활 타오르는 자가 왔기 때문이다. 대지를 향한 태양의 사랑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순진무구함과 창조예의 열망이 모든 태양의 사랑이다!²⁾

1) 프리드리히 니체, 장희창 역,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민음사, 2004, 203쪽.
 2) 프리드리히 니체, 위의 책, 218쪽.

요컨대 위버멘쉬란 지배적인 선과 악의 관념, 절대적인 가치들을 극복하여 대지를 긍정하고 마치 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함으로 창조와 놀이에 열중할 줄 안다는 것이다. 조르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때문에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해 평할 때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현대적인 해석한 작품이라고도 한다. 조르바의 이런 모습은 그의 분신인 산투르(아랍, 북인도의 타현악기)를 연주하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굵은 손가락을 산투르 위에 올리고 목을 뽀얏다. 그러고는 거칠게 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우리의 근심은 흠어지고 걱정은 사라졌으며 기분은 최고조에 달했다. 툴라, 갈탄, 선로, 〈영원〉, 크고 작은 근심..... 모두가 푸른 연기가 되어 하늘로 사라졌다. 남은 것은 강철의 새, 노래하는 영혼뿐이었다.³⁾

반면 바실은 니체의 말을 빌리자면 ‘영혼의 결핵 환자’이자 ‘몸을 경멸하는 허약한 자’로 보인다. 바실도 자신을 책 부스러기 속에서 원고 나부랭이나 쓰는 책벌레라고 말한다. 이를 떨치고 행동하는 삶을 찾아 나선 바실에게 조르바는 수학하고 싶은 새로운 학교였다. 새로운 스승 조르바는 바실에게 대지의 삶에 충실할 것을 주문한다. 소설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조르바의 지론이다. 이를 위해 조르바는 육신의 쾌락을 부끄러이 여기는 바실에게 늙은 과부와 재미를 보면서 닭수프와 포도주로 육체를 먹이는 법을 알려 준다. 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 혹은 정신적인 교감을 위해 춤으로 내면을 표현하는 방법도 가르친다. 나아가 진정한 자유란 소매상처럼 모든 걸 따지는 이성이 아닌, 정열에 따르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조르바의 이러한 가르침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사실 조르바의 인생은 언뜻 보기에 성공적인 삶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반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막일하며 사는 조르바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지 않는 게 다행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바실이 “조르바는 위대하다”라고 찬양할 만큼 그는 매력적인 인물이다. 그것은 그의 부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그의 가치관과 실천력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실이 그러했듯이, 분명 그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그의 인생에서 배울 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말했듯 니체의 사상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는 내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처음 읽었을 때 받은 충격이 생각난다. 신을 죽인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를 내세워 정의, 선, 동정 등 수많은 가치를 부수고 그 위에 자신의 도덕을 세웠다. 그 위에서 영원회귀하는 자신의 운명을 기꺼이 긍정하고 대지 위의 삶을 사랑하라고 니체는 말했다. 수능 때문에 사는 것만 같던 나는 이런 충격적인 니체의 주장에 끌렸지만,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와닿지는 않았다.

그런데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리스인 조르바』를 통해 그런 니체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놓았다. 단순한 구현일 뿐 아니라 현대 소설의 형식에 녹아든 ‘차라투스트라’는 훨씬 설득력 있고 강렬하다. 카잔차키스가 19세기의 차라투스트라를 20세기의 조르바로 바꿔줬으니, 21세기의 내가 할 일은 또 한 번 20세기의 조르바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없지

3) 니코스 카잔차키스, 이윤기 역, 『그리스인 조르바』, 열린책들, 2009, 261쪽.

는 않다. 그렇기에 나의 삶을 대조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사는 방식이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니듯 조르바의 것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조르바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잘 저울질해보면, 나의 시대와 조르바의 시대를 꿰뚫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나는 조르바에게서 그 무엇보다도 긍지를 눈여겨보았다. 조르바는 ‘내부의 신성한 야만의 목소리’를 긍정하여 그대로 따르기는 데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사람이다. 바실에 대한 조르바의 모든 가르침도 결국 이것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니체가 말했듯 사자처럼 ‘나는 원한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어린 아이처럼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조르바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이 긍지로부터 나온다. 반면 요즈음 ‘혐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혐오가 쉬운 세상이다. 이는 그만큼 자기를 긍정하는 일이 어려워졌다는 걸 반증한다. 자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눈을 돌려 혐오를 즐기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이들이 서로에 대한 질시 어린 비난에 빠질수록, 자신들 내면의 목소리는 왜곡되어 자기를 위축시킬 것이다. 만일 그 악순환의 고리에 나까지 빠져들어 갈 것 같은 순간이 온다면, 나는 이렇게 조르바를 떠올릴 것이다.

조르바의 긍지는 ‘내가 저 사람 보다 잘나서’ 생기는 게 아니다. 내 감정과 열정에만 직면할 수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에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힘을 쏟아야 하는 건 내가 진심으로 열망하는 바를 직시하고 성취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니까 조르바처럼 춤을 추지는 않더라도, 나의 감정과 열정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자. 그리고 만약 지금 내 상황이 힘들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고 해도, 허무에 빠질 필요 없다. 오히려 웃으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어려움에 좌절하여 나를 긍정하지 못하면, 고통과 혐오의 악순환에 쉽게 빠지게 될 것이다.

수상	장려상
도서	데미안

오직 나만의 것 - 『데미안』을 읽고

인문대학

사학과

김○영

출판 '나만의 것'을 좇고 있다고 믿어 왔지만 가끔씩 그런 생각들이 모조리 부정당하는 날이 있다. 누군가와 의 만남에서, 책 속 어딘가에서 스치듯 보고 지나간 것들을 마치 나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불안감. 나는 처음부터 누군가를 표방한 아류작이었고 잘 되어 봤자 그 사람에 미치고 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 그럴 때마다 나는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표현들 역시 흔해 빠진 것 같아 팬스레 속으로 빠져대곤 한다. 그런 구차하고 '찌질한' 나날들의 반복 속에서 발견한 이 책은 내게 정답을 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꺼이 '나의 우물에 돌을 던지는' 시도를 행해 주었다.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내가 '싱클레어'고 이 책이 '데미안'이었다.

싱클레어는 책 속의 화자이자, 저자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인물이다. 어린아이였던 그는 평화롭고 엄숙한 집 안의 세상과 괴롭힘과 시달림이 존재하는 집 밖의 세상을 겪으며 언제까지고 밝은 세계 안에서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는 중이었다. 데미안은 그런 싱클레어의 앞에 영웅처럼 나타나 갖가지 혼돈 속에서 그를 구원한다. 그리고 아벨과 카인 이야기, 골고다 언덕의 예수와 두 도둑 이야기를 통해 싱클레어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존재함을 일깨워 준다.

선과 악은 절대적인 것인가에 대해 언제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 세상의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선과 악을 가르는 구분선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을 것이다. 오늘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일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모레 다시 선한 것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나만의 어떤 기준을 내세워 무엇이 선이고 또 악인지 하나하나 구분해 내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오늘 데미안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선과 악의 개념은 나의 '내면세계'를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도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과 악이라는 가상의 개념이 있어서 우리는 무언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담아 보고, 또 어떤 날에는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던져버렸다가 다시 주워 담아 보기도 한다. 그것들은 서로 끊임없이 충돌하며 나의 내면세계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어 준다. 이것은 비단 선과 악의 개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러한 내면세계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것이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데미안과도 헤어져 방황하던 싱클레어는 한 소녀에게 빠진 것을 계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베아트리체라고 이름붙인 소녀의 형상에서부터 싱클레어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느낌, 이를테면 동경, 아름다움, 이상과 같은 것들을 그려낸다. 머지않아 싱클레어는 자신이 데미안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림에 드러나는 그의 내면의식은 데미안을 찾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점차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 어떤 날에는 몸통 절반이 땅 속에 묻힌 채 날아가려 애쓰는 새의 그림을 그려낸다. 그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낸 싱클레어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받는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압락사스.’

결국 우리 내면의 세계란 평화롭고 따뜻한 것을 추구해야 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데미안이 말했던 것처럼 빠져나오려고 투쟁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몇 번이고 ‘종말’한대도 괜찮은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종말을 환영해야 한다. 부수고 깨트리고 파괴하면서 몇 번이고 새로 태어나야만 한다. 이때 종말이 선일 수도, 이후의 탄생이 악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둘 다 선이거나 악일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 그 모든 것을 정의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책 1장에 쓰여 있듯 우리의 내면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자기 자신 뿐이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고 탐구하는 미술이라는 활동을 통해 진흙탕에 박힌 채로 날아오르려 하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해 냈다.

사실 내 안에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내면세계는 기분과 헛갈리기 쉬운 것 같다. 있다 해도 나오는 한참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나만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했다. 외부의 것들을 재료로 하는 완전한 외부 불가침의 공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파괴되어 종말을 맞이해야 하는 공간. 그렇기에 더욱 아름답고 영롱한 공간. 자신에게 기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어딘가에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는다.

데미안의 답장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던 싱클레어는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와 만나게 된다. 둘은 수많은 대화를 주고받았고 싱클레어는 그만큼 자신의 세계가 확장됨을 느낀다. 그들의 대화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고 그 모든 대화를 포괄한다고 생각했던 대목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보는 사물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사물들이지. 우리가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란 없어.’ 그런가 하면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을 만나기도 한다. 싱클레어는 그녀와의 교류를 통해 충만함과 사랑,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는 불길한 예감에 두려워한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각기 다른 곳으로 징집되어 헤어지게 된다. 어느 날 전장에서 다시 만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이런 말을 남긴 채 사라진다. ‘너는 나를 어찌면 다시 한번 필요로 할 거야. 그럴 때 넌 네 자신 안으로 귀 기울여야 해. 그러면 알아차릴 거야.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머지않아 싱클레어는 자신의 내면세계에 놓인 거울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데미안의 모습을 본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와 버렸다. 그래서 ‘오직 나만의 것’을 찾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기에 데미안이 주는 ‘내면의 세계를 인식하고 진정한 나를 향해 나아가라!’는 메시지는 나와 같은 ‘오직 나만의 것’을 찾아 헤매는 개인들에게 바치는 위로임과 동시에 그것을

찾는 데 필요한 열쇠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며 용기를 낸대도 나는 또 다시 찾아올 언젠가의 시작에서 이전처럼 두려워하고 망설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지 조금은 알 것 같다. 내면세계의 종말과 탄생을 앞당기는 소중한 나의 혼돈, 그것들이 모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가 끝을 맞는대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찾아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결국 '진정 새로운 것은 내면세계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음을, 처음부터 모든 것은 내면세계에 존재했음'을 마음에 새긴 채로.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오롯이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과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수상	장려상
도서	데미안

선악과, 선, 악과 - 『데미안』을 읽고

공과대학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김○음

선악과善惡果는 왜 금단이었나. 전능하신 권능을 말미암아 영장으로 하여금 선만은 알게 할 수는 없었나. 구태여 금지하였던 것은 선과 악이 태초부터 완전무결하게, 마치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듯 맞닿아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선악과, 선, 악과. 선과, 악.

데미안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두 세계. 지극히 직관적이다. 그럼 어떤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인가? 저자는 또한 직관적인 발음으로 단서를 분명히 제공한다. ‘그곳에서는 두 세계가 뒤섞였다.’ 밤과 낮이 두 극으로부터 나왔다. 밤과 낮, 선과 악, 빛과 어둠. 각기 세계에 대한 열거들이 이어지며 내 머릿속을 지배한 이미지를 뒷받침했다. 자못 상극이기까지 한 두 속성들은 기실 각자의 일면과 등 대고 있었으니, 싱클레어가 그 사이를 침범한 선으로 주욱 갈라도 상상의 종극은 기어 이 회색빛 혼재였다. 옛적의 이브가 기어코 베어 문 사과의 조각이 영장이라면 무릇 혈관을 따라 고고히 흐르고 있기 마련이기에, 우리는. 악몽이 찾아든 밤이면 본능적이다시피 눈을 떠 어머니의 품으로 도망하고, 구원을 찬란한 태양에, 광휘에 비유하고, 아무리 유약한 자아일지언정 제 몸에 깃든 어둠을 인지하고. 그토록 백색 찬연한 낮을 숭상하던 연유가 붉디붉은 태고의 편린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면 영장은 존재 자체로도 두 세계의 경계이자 무주공산의 교차로다. 발 잘못 디디면 언제고 밤에 빠지겠지만, 곧게 걸음하거든 그게 곧 자기 자신이 되고 낮의 세계가 될 테니까. 언제고 밤이 찾아들겠지만, 금세 낮으로 도피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의식적으로 도망칠 필요가 있던가? 낮과 밤의 정의는 누가 내린 것인가?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나?

데미안은 회색빛이었다. 단편적으로 프란츠 크로머의 검은 휘파람을 종식했으니 싱클레어에게 있어 구원이나 다름없었으므로 백색이지 않겠느냐, 물건대 나는 고민 없이 아니, 라고 답하겠다. 흑백 논리로 얽히고 설긴 일련을 - 역지가 다분하지만- 갈라보자면 사과를 훔쳤노라 거짓을 말한 싱클레어는 흑, 이를 통해 협박과 괴롭힘을 가한 크로머는 당연지사 흑, 명백한 피해자였으나 어찌 되었건 죄를 덮고자 더 큰 죄를 짓고 진실하지 못한 싱클레어는 다시금 흑, 가엾은 영혼을 구해낸 데미안은 백.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 일컫는 카인을 더러 비범하다 지칭한 데미안은 흑인가, 백인가? 거룩한 십자가에 못 박혀 회개한 도둑을 더러 제 신념을 지키지 못한 비겁자라 이른 막스 데미안은

흑인가, 백인가? 공인된 기준에 따르거든 데미안은 지극한 흑이다. 그러면서도 백이다. 양립할 수 없는 두 세계에 모두 몸담은 군상이 빛으로, 베아트리체로, 송고함으로, 동경으로. 그래, 혼재가 곧 영장이요, 우리의 자맥이 곧 선악과다. 실로 불규칙한 고통이 우리네 삶을 수없이 관통하며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우리들의 색이다.

아주머니, 아니 어머니, 전 당시에 자주 생각했어요, 죽어야겠다고요.⁴⁾

세계를 부수고 나온 새는 아브락사스를 향해 날아간다. 새의 탄생과 한 세계의 사멸이 동시에 일어난다. 생과 사의 경계가, 통속적인 빛과 어둠이 일체 되어 있는 것이다. 탄생과 죽음은 정오와 자정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하루의 주축이 된다. 서로 다른 두 극에서 나왔으나, 어느 것이 샷되었고 어느 것이 그르다 쉬어 나눌 수 없다. 요컨대, 혼재 속 발화된 불길은 혼재 속 몸집을 불린다는 이야기다. 죽어야겠다고, 크로머의 휘파람 속 싱클레어는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죽었다. 마치 신이 죽은 것처럼, 심연 속의 에밀 싱클레어는 죽었다. 그리고 잣더미가 된 어둠을 좀먹고 다시금 눈을 떴다. 싱클레어는 다시금 사멸을 맛봤다. 이때는 구태여 데미안이 알껍질을 두들겨 줄 필요가 없었다. 그는 나아가는 법을 알았고, 날갯짓하는 법이 뺏속에 새겨져 있었기에 제 손으로 방향의 굴레를 끊고, 단단한 껍질을 깨부수고, 기어이 아브락사스의 품으로 향했다. 불길은 더욱 단단해지고, 찬란해진다. 생애 몇 번이고 마주하는 세계를 부숨으로써 탄생하고, 탄생하는 우리들은 분명 사멸을 말미암는다. 어떤 것의 종말을 토대로 빛나는 삶은 죄인가? 악업인가?

혈맥에 아로새긴 선과 악이다. 그것들이 바로 영장이리라. 하여 다시금 묻겠다. 낮과 밤의 정의는 누가 내린 것인가?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가? 밤이 도래할 적에 구태여 도피하고자 함은 실상 어둠에 잠식될 자아를 염려한 본능의 일환이 아닐까. 바로 된, 무결하고도 무구한 ‘나’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의 표상이 아닐까. 악법도 법이고 위선도 선이면 이러한 욕망은 욕된 것인가, 망념된 것인가.

종장의 제목은 종말의 시작이다. 전쟁의 포화 속 그들의 유혈의 위업은 오로지 내면의, 그 자체 안에서 산산이 파열된 영혼의 발산이었다. 세계를 부순다. 거대한 새가 각기의 안에서 움트고, 비상하기 위해 제 영혼과 육신을 태워 세계를 부순다. 비산하는 타성들은, 천공을 가르는 별들은 모두 잣빛 매캐한 혼재다. ‘나’이기 위해, ‘나’의 삶을 위해, 아브락사스, 아니, ‘나’에게로 향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마저도 환하게 불사르며 단단한 신념을 지키는 것이다. 종장의 끝은 책의 종극이되 사멸이다. 싱클레어의 사멸, 데미안과 완전히 닮아버린 에밀 싱클레어의 종말. 그러나 그는 활자를 부수고 날갯짓해 우리의 사고로 비상한다. 끝이며, 끝이 아닌 것이다.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또 다른 자아일지도, 아닐지도 모르는 것처럼. Demian, Dämon,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충실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동안 꼭 잡아온 악마의 손을 비겁하게 놓지 않았어. 어쨌거나 합일된 것이다. 선과 악이, 낮과 밤이, 빛과 어둠이.

실낙원의 이브는 선악과를 베어 물었다. 그것이 진정 죄인가? 알 수 없다. 선과 악은 완전히 가려낼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차선이 표기되지 않은 무법지대가 선악으로 혼재된

4) 데미안, 헤르만 헤세, 민음사, 본문 중

영장의 세계였으므로, 일평생 깨부수어야만 하는 껍질이였으므로. 회색빛으로 물든 시야가 부엌다. 낮이고, 밤이고, 다만 우리는 단단한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벽에 부딪히면 몸으로 들이받고, 혼백을 찬연하게 불살라 헤쳐야만 한다. 그 자취가 남들과 달라도 괜찮으니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만의 길, 나만의 삶, 결국 선과 악으로 뒤덮인 여정 끝에는 진정한 나에게로 도달할 수 있으므로. 문득은 생각해본다. 전능하신 권능으로 영장이 스스로가 '나'를 찾도록 선악과를 창조한 것이 아닐까. 하여 과실의 이름마저도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 아닐까.

아삭, 사과 베어 무는 소리가 들렸다.

수상	장려상
도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무사유의 홀로코스트

-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박○경

우리는 모두 아이히만을 죄인이라 부르고 싶다. 나치의 반인륜적인 행위에 앞장서 수많은 유대인을 ‘효과적인’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물. 한 인종을 지구상에서 뿌리뽑고자 하는 일에 무엇보다 충실했던 인물. 그가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도 우리 또한 죄인이어야 한다. 물론 교수형에는 처해지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일삼는 무사유는 아직, 아이히만의 무사유만큼 많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던 그는 친구의 권유로 함께 나치당에 가입했다. 유대인을 수송하는 업무를 맡은 그는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현해냈다. 재산을 환수당한 후 독일에서 추방당하거나, 수용소로 향해야 하는 유대인들이 한 곳에서 모든 행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협동 작업라인을 구축한 것이다. 아이히만은 단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라는, 매우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고민을 했을 뿐이었다. 게다가 그는 의사의 꿈을 꿀 수도 없을 만큼 상처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살면서 유대인을 미워해 본 적도, 직접 죽여본 적도 없었다. 그가 유대인에게 미안했던 일이라곤 한 유대인의 뺨을 때렸을 때 뿐이었다. 유대인들의 마지막 종착지인 폴란드 학살센터를 답사하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회의감을 느꼈다. 그러나 곧 반제 회의에 참여한 그는 ‘살인’, ‘학살’과 관련된 모든 숫자를 단순한 통계치로만 볼 수 있게 된다. 본인은 그저 상부의 명령을 따르는 공무원이며, 자신이 하는 일은 국가를 위한 충성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하게 된다. 자기합리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 따르면, 그는 충직한 독일의 공무원일 뿐이다. 비로소 그는 스스로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가 ‘본디오 빌라도’가 된 것 같은 감정까지 느꼈다. 성난 관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달라 외쳤다. 그가 겪은 예수는 죄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관중의 대표자로서 행동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말한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을 안고 손을 씻었다. 더없이 합리적이고 옳은 일이었다. 여론이었고, 대중의 목소리였다.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러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학생 A는, 어느 날 같은 반 친구 B가 이랬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게 된다. 학교는 그 일로 인해 떠들썩했고, 소문 속 B는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모두가 B에게 거

리를 뒀다. A 역시 친구들과 어울려 B를 투명인간 취급 하기 시작했다. 그게 잘못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B는 나쁜 애였기 때문이다. B의 슬픈 얼굴이 조금은 마음에 밟혔지만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친구들도 다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 무렵 연예인 C의 ‘노브라’ 이슈가 뜨거웠다. 모두가 그녀를 주목했다. 별다른 일이라고는 얇은 천쫂가리 하나를 벗어 던졌다는 것. 그 일로 인해 그녀는 어딘가 좀 독특한 여자가 되었다. xx년, xx에 환장한 년이라며 그녀를 헐뜯는 이들도 많았다. A는 아무 생각 없이 댓글을 달았다. ‘그렇게라도 관심받으니 좋냐? SNS에 그런 사진 올릴 때부터 알아봤다. 부모님 보기 창피하지도 않나.’ 그 댓글에는 생각보다 많은 ‘좋아요’가 달렸다.

학교를 졸업하고, B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동창들끼리 가진 술자리에서, 한 친구가 얼큰히 취한 얼굴로 ‘야, 그 소문 내가 냈어!’ 라며 낄낄댔던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다. 이유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냥 꼴보기가 싫었다나. B에게 조금 미안했지만, 더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 무렵 연예인 C가 자살했다. 사람들은 갑자기 그녀를 추모했다. A가 달았던 댓글에는 ‘좋아요’보다 훨씬 많은 ‘싫어요’가 달렸으며, 어마무시한 욕이 A에게 쏟아졌다. 덜컥 겁이 나 댓글을 지웠다. 그리고는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마음에 SNS에 글을 썼다. ‘하늘의 별이 된 C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걸로 됐다. 그 전의 일도, 지금의 일도, 더없이 합리적이고 옳은 일이었다. 여론이었고, 대중의 목소리였다.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러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아이히만, 그리고 A,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 아닌가? 신 앞에서, 법 앞에서, 그리고 사회 앞에서, 이들은 누구인가? 만약 죄인이라면, 그들의 죄는 무엇인가?

무사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다. 생각하지 않은 것, 시키는 대로만 한 것, 대중의 물결에 함부로 휩쓸린 것. 그래서 이것은 곧 ‘우리’의 죄다. 사유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대중이 항상 옳을 것이라 믿는다면, 우리 또한 언제든지 아이히만과 같은 괴물이 될 수 있다. ‘악의 평범성’, 그 불편한 진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악은 다양한 모습으로, 또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한다. 우리 주변에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생각으로 단단히 자리하고 있다. 악은 사유를 거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챈다. 그리고는 단단히 둘러붙어 행위자의 눈을 멀게 한다. 그리고는 낚시에 속삭인다. 남들도 다 그러고 있잖아, 야, 시켜서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착한 척 하지만, 복잡하게 더 생각할 필요도 없어.

단 한 번도 ‘무사유’의 결과로서 행동한 적이 없는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불편할 고민을 마주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괴물인 적이 있었으며, 무사유를 일삼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수많은 ‘가해자 없는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모두 개인이기에, 더없이 평범하기에, 악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 그러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너무도 자주, 너무도 당연하게 악을 용인하고 만다는 것.

이제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여전히 지구 곳곳에는 인종, 성별, 학력, 나이, 성적 지향, 그리고 마음처럼 되지 않는 모든 것들로 인해 핍박받는 이들이 있다. 양상한 몸과 텅빈 눈으로 가스실을 향해 걸어가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 그들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네가 될 수도 있으며,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무표정으로 가스실 밸브를 내리는 이의 얼굴에도 가끔 내가 겹쳐보인다. 그럴 때면 꼭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죄와 무죄의 경계를 넘어서, 온전히 사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유대인 상점의 모든 창문이 깨졌던 그 유리의 밤, 크리스탈나흐트를 기억하기 위해서. 무사유가 불러 온,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 없는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수상	장려상
도서	소년이 온다

민주화를 위한 희생

인문대학 철학과 유○린

여느 해와 같이 5월은 온다. 5월은 추위를 많이 타는 내가 기다리는 달이다. 그만큼 날마다 햇살이 진하게 내리쬐고 생명력이 가득한 달이기에. 그러나 광주의 5월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5월이다. 벌써 40년이 지났다. 나는 3년 전 5월 18일의 뉴스를 잊을 수 없다. 당시 TV에는 ‘38주년 기념식⁵⁾’이 열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립 5·18 민주 묘지에 방문하여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이것도 여느 해와 다름 없었다. 나는 그게 참 별로였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주년’, ‘기념’이라는 단어를 감히 사용하며,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뤘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이룬 것은 슬픈 일이고, 그것에 대해 추모는 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민주화를 있게 하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죽음을 정당화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그 기념한다는 민주화는 5·18 민주 항쟁으로 인해 이루어졌나? 백 번 양보해서 한 획을 그었다고는 할 수 있겠다. 아주 미세한 획.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던 막강한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용감한 도전이었으니까. 5·18 민주 항쟁은 그런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에 총력을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민주화의 거름’이라 여기며 ‘기념’이라 포장하는 것이 괴상하다. 그래서 안 된다. 민주화의 완성은 아직 멀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독한 불평등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다. 이미지 메이킹만이 중요한 사람들은 진정한 민주화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은 해보는 걸까 의문이 들었다.

“2009년 1월 새벽, 용산에서 망루가 불타는 영상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 중얼거렸던 것을 기억한다. 저건 광주잖아.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피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주가 수없이 되태어나 살해되었다. 덧나고 폭발하며 피투성이로 재건되었다.”(207쪽)

5) 그 ‘기념’식에 5·18 민주 항쟁 당시 행방불명된 아들을 38년간 찾는다는 아버지가 나와 이야기를 했다. 사람들은 ‘기념’식에서 코를 훌쩍였다. 아이러니했다.

잔인한 국가폭력은 1980년 광주에서, 2009년 용산에서, 2016년 세월호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그놈의 민주화는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 계속해서 국가가 많은 이들을 죽이고 있는데. 용산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 <공동정범>을 시청했던 적이 있다. 영화에서는 공권력이 만들고 국가 폭력이 낳은, 어쩌면 사적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작은 상처를 주시한다. 소설⁶⁾ 『소년이 온다』도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소년이 온다』는 오래 전부터 주변 친구들이 나에게 꼭 한 번 읽어보라고 추천한 책이다. 하지만 추모공원 같은 곳이라도 가면 감정에 휩싸여 한동안 그 자리를 못 뜨는 나를 아는 한 친구는, 작가의 표현이 너무나 섬세해서 잔인하고 슬프니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 읽지 마라고 하여 첫 장 넘기기를 미루고 있던 책이다. 책의 출판사인 창작과 비평의 유튜브 채널에 가면 한강 작가가 직접 목소리로 1장을 낭독한 녹음 영상⁷⁾이 있다. 그래서 1장 <어린 새>는 작가의 목소리로 읽게 되었는데 역시는 역시. 상황이 생생⁸⁾하게 다가와서 눈물이 났다. 이것은 분명 내가 이 이야기를 글자로 마주하지 않고 한 사람의 목소리로서 마주했기 때문에 더욱이 감정적으로 다가왔으리라. 이 책을 독자와 어떠한 사건이나 국가 폭력으로 마주 한 것이 아니라 당시를 살아냈던 사람들을 마주했기 때문에 5·18 민주 항쟁으로 비롯한 분노와 슬픔이 마음 깊숙이 들어왔던 것처럼 말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공감하기 위해, 혹은 공감했기에 떠올린 것들을 기록해보려 한다.

1. 국가. 진상.

추도식에서 애국가를 부른다. 죽은 몸을 담은 관은 태극기로 감싼다.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⁹⁾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 많다. 1980년 5월 권력을 잔인하게 휘둘러 광주를 초토화 시킨 주범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음에도 지금 골프를 즐기며 회고록¹⁰⁾ 따위를 낸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그것도 경찰청장.)의 이름을 달고 2009년 용산의 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몰았던 당시 진압 책임자는 이번 선거 국회의원으로 또 다시 당선되었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한다. 그런데 이 자유와 권리라는 것이 가시적인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무시당하고 침해된다.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는 더욱이 그렇다. 어쩔 수 없는 사회의 이치이니 어쨌든 국가는 국민의 보호라는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임신 중절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 ‘N번방 방지법’이 의결되었다고 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고 만 18세의 국민이 유권자가 되었다고 해서, 장애인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차별금지법에 관해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국가는 국민의 자

6) 『소년이 온다』는 소설이지만 작가는 인터뷰에서 당시 광주를 살아낸 사람들이 이야기를 쓰고, 작가는 그저 작가의 삶의 시간과 감각을 빌려준 것 같다고 했다. 그만큼 소설을 넘어서는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7) 미디어창비, 한강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 저자 낭독(<https://youtu.be/pwxNy8gGkiE>), 2016.

8)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장에 복원 및 재현해 놓은 구도청과 상무관, 그리고 분수대의 위치와 광장의 전체적 구도를 옆두에 두고 읽으니 상황을 실감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9) 한강, 『소년이 온다』, 창작과 비평사, 2014, 17쪽.

10) 이 회고록에는 자명한 진실을 부정하는 뻔뻔한 모습이 담겨 유가족들과 광주와 국민들을 또 한 번 상처 받게 한다.

유와 권리를 보호했다고 할 수 있을까? 방금 열거한 것들을 ‘발전’이라고 한다면, 이 발전 이전의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은? 국가가 5·18 민주 항쟁을 ‘기념’하며 5월 광주의 사람들을 희생이라 여긴 것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미미한 걸음을 한 발짝 내딛은 것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이전에 보호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저 어쩔 수 없는 희생, 발판이 되어 정당화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5·18 민주 항쟁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까? 역사가 끊임없는 시대 간의 소통과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할 때, 5·18 담론과 같은 역사 담론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문제를 해석하는 각각의 논거의 경계에서 지속적인 성찰을 전제로 한 소통과 설득, 그리고 토론이다. 언제나 지배적인 담론만을 되풀이 해왔고 그러한 지배적인 담론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소통과 설득, 그리고 새로운 토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18 민주 항쟁 속 약자와 소수자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견힐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약자와 소수자는 논외였기 때문에 이제서야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반성해야만 한다. 여성들의 피해를 우리가 몰랐던 것은 그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아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매 순간 외쳤다. 하지만 우리는 들어주지 않았다. ‘진상’을 규명하라고 매년 들리는 그 외침에서, 그 ‘진상’은 누구를 위한 진상이었는가? 이것은 바람직한 역사 담론이라고 할 수 없다. 시대간의 소통에서 누군가 배제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 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역사적 사건을 저 멀리서 그저 사건으로만 봐서는 아니 된다. 그 사건을 이해하고 진상을 규명하려면,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아야만 진상을 규명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양심. 광휘.

내가 1980년의 전남대학교 학생이었다면 나는 ‘데모’를 했을까? 당장 눈 앞에 총과 곤봉을 든 군인들이 득실대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나섰을까? 흔쾌히 그렇다고 하기가 어렵다. 생각만 해도 두렵다. 어떻게 하면 총탄이 난무하는데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동료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 때 5월의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양심. 쇠와 피가 주는 두려움을 양심이 압도한다.

“더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았던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혈관에 흐르며 고통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송고한 심장의 맥박을 나는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114쪽)

화자는 양심을 ‘눈부시게 깨끗한 보석’이라 비유한다. 이 양심에 압도 되어 권력의 두려움을 이겨낸 순간을 그 보석이 이마에 들어와 박힌 것 같은 광휘라고 표현한다¹¹⁾. 소름이 돋았다. 마치 내가 2018년 혜화역 시위에 참여했을 때 느꼈던 감정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10만의 여성들은 시위 몇 번에 상황이 눈에 띄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위 참여자를 떠나 개개인에게 향하게 될 눈초리와 손가락질을 알고 있었다. 나도 그랬다. 그렇지만 부당한 이 사회를 좀 바꿔 보자는 똑같은 마음으로 모였을 때, 같은 것을 위해서 같은 목소리를 낼 때 내가 느꼈던 ‘광휘’는 실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었다. 이것은 너무나 중독적이라 나를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한다. 항상 세

11) 한강, 앞의 책, 116쪽 참고.

상에 물음표를 던지고 맞서게 한다. 그리고 광휘를 느꼈던 것은 삶의 원동력이 되어 내가 '나의 울음'을 좇으며 살게 돕는다.

『소년이 온다』를 읽고 1980년 5월을 떠올린다. 생기 가득한 5월이 40년 전에는 피비린내 가득했을 것을 생각하니 손끝이 저릿해진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모습을 달리한 광주의 5월이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소를 다 잃어 놓고서야 외양간을 고치는 것을 멈추고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와 이것에서 비롯된 폭력을 세심하게 주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희생'의 이름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화임을 알아야만 한다.

2020학년도 겨울방학 전대애틀서52 독서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품집

발행일 : 2021년 2월 28일

발행인 : 차 성 현

편집인 : 정 다 운

발행처 :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양교육지원센터

주 소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 화 : 062-530-0916

팩 스 : 062-530-5072

누리 집 : <http://ile.jnu.ac.kr>

©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2020.